

먼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를 부르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공부하도록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19~21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 두 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겔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저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로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저를 떠나 돌아가서 소 한 거리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가서 엘리야를 좇으며 수종 들었더라]

후계자를 세운다고 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나 후계자로 세울수도 없는것이고 그리고 먼저 하셨던 선생님 먼저 앞섰던 분이 했던 그 역할에 따라서 어떤 사람을 후계자로 삼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역사에 불현 듯 나타나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섬김의 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였고 그리고 어느 날 홀연히 사라진 인물 바로 이 분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운데 가장 암담하고 가장 죄가 많았던 그런 시대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보였던 엘리야 그 엘리야가 이제 조금 후면 하나님께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있으면 그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끼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직접 엘리야를 통해서 세우십니다.

그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엘리사죠. 이런 엘리야의 역할을 대신할 사람을 세웁니다. 아무나 세울 수 없을 겁니다.

이 역할의 중대성을 보았을 때 그렇죠?

오로지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이 중심인 여호와 중심의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고 그리고 가르칠 사람 그 분을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고르
셨어요.

이 엘리사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하는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관점이에요.

엘리사 이름의 뜻대로 엘리사는 활동했어요.

엘리사의 활동, 사역을 쪽 살펴보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 보이는 기적의 연속 대략 한 스무번정도가 그런 기적이 나
타나는데요.

기록된 것만 그렇고 기록되지 않은 것도 또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보여주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명이죠?

열 아홉명 저는 이거 외울 때 어떻게 외웠냐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
이 되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죠?

북쪽은 숫자가 조금 더 적었고 남쪽이 하나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왕이 20명이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맞죠? 맞아요!

그런데 그 19명 중에서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기는 9번째 여호람왕부터 시작해서 12번째 요아스 왕까지 대략 50여년 동안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50여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 엘리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보여주게 되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죠? 엘리사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살펴보면요

다시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어쨌든 이 엘리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 뒤에 15절부터 19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엘리야를 대신 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선지자 하나님이 지목하셨습니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시키신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그 말씀대로 엘리사에게 나아가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일을 맡깁니다.

이건요 주님이 일꾼을 부르실때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또 신약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데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 보이시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디모데후서 1:11~14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 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 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써 내게 들은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이제 지금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 섬기는 도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맡겨주셨던 이 일들을 이제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다음 선지자 엘리사에게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찾았으니까 한 장만 넘겨보시죠.

디모데후서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수 있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역자들 또 다른 일꾼들을 계속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엘리사처럼 엘리야처럼 지금 주님을 우리를 부르셨고 그 가운데 두셨고 우리를 지금 쓰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을 들었을 때요 엘리사의 반응을 보면요

엘리사는요 바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 순종이었는지 그 당시의 배경을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19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엘리야와 만나게 된 엘리사의 모습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저가 열 두 거리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둘째 거리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겔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지자가 입고 있던 가죽옷을 던졌다는 것은요

이것은 후계자로 삼았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아는거예요.

그런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엘리사의 모습은 지금 소를 끌고 어디에 있었어요?

농사짓고 있었어요. 그죠?

밭에서 농사짓고 있었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풍부한 부잣집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소를 12거리 거리는 pair를 의미합니다.

쌍을 24마리를 끌고 농사를 짓습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한 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 많은 소를 끌고 농사를 지을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모님께로 물려받았는지 허나 부유했던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요 그대로 버리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의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결단이에요.

엘리사는 엘리야가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리고 그 역할을 지금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도 아는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어부들 그물잡고 그리고 그물 준비하고 배 손질하고 어부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하고 있는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은요 평상시 자기에게 맡겨진 일, 그 일에 충실하고 있는 가운데 부름을 받는 겁니다.

직장인으로서 학생으로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히 행하지 않는데 주님 부르시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충성되이 여기서서 주님 부르시는 겁니다.

충성된 사람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엘리사에게 말하십니다.

[내 부모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이건요 먼저 술을 버리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뛰어갔다가 그리고 다시 인사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와가지고 그러고 내가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거예요.

사랑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자기와 함께 했던 이웃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는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에 감사함으로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어린 영혼들을 지금 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일에 임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안에 사랑이 듬뿍 담겨져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엘리사의 행동 첫 번째는 부모의 유산을 포기하고 순종했어요. 하기 쉽지않은 일이었겠지만

마태복음 10:37~39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 부르신 가운데는요 전적인 희생과 또한 자기 삶에 대한 포기가 먼저 따릅니다.

엘리사가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고나서 소를 버렸죠?

소를 버리고 따릅니다.

그것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두째 겨리 그 소들을 잡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삶아서 먹게 주었어요.

농부가 소를 버리고 가요 농부에게 소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굉장히 중요한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게 있으니까 이것을 버리고 가요.

농부에게 있어서 소가 중요한 것 보다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 부르신 하나님의 일의 중대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안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보다 엘리야를 통해 부르신 그 부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엘리사는 아는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님에게 가서 입맞추게 하소서 이제 다시 보지 못할 부모님들
어쩌면 오늘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는데 마지막일지 모르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오게 하소서 이 비슷한 경우가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어요

누가복음 9장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누가복음 9:59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좇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거는 허락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는 그렇게 하라고 중심이 달랐어요 이 사람들이요

가족에 대한 애정과 가족에 대한 핑계로 지금 주님을 안 따라가겠다고 엘리사의 마음과는 완전히 반대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중대성을 알고 그리고 그 중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인사하고 오겠다는 이 사람들은 이걸 핑계라고요

엘리사가 보여줬던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이예요.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 중대성을 알고 지냈더라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깁니다

그리고 잠깐 뒤에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게로 부름을 받는데 그 장면이 불병거를 타고 회라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 장면이 열왕기하 2장에 나오죠?

열왕기하 2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바로 엘리야를 불러 올리신게 아니에요 이것 또한 엘리사에게 맡겨진 중대성을 또 한 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왕기하 2:1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러실 것을 엘리야도 알았고 엘리사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하 2:2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뽀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좀 있어라 여기 머물러라 하나님이 나, 여호와께서 나를 뽀엘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선생님 다녀오십시오 해도 될 것을 굳이 계속 쫓아가요

이유가 있어요.

엘리사는 지금 엘리야와 헤어지면 다시는 엘리야를 보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한 엘리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갑니다.

또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가 하나님 편으로 가게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 3절과 5절에 나와요.

[벧엘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줄을 아나이까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 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줄을 아나이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데려가실 거 아는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없으면 그 일 누가 해?

나한테 그런 능력이 없는데 엘리사의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쫓아갔어요

계속 쫓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나오죠?

4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매]

또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이 또 그 얘기를 해요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생도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날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취하실줄을 아나니까 엘리사가 가로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는거예요.

그리고 계속 따라갑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와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목적을 그 이유를 이제 9절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여기요 이 말씀을 통해 엘리사의 개인적인 특성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마음또한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대 선지자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영광보다 지금 얼마를 원해요?

갑절을 원해요

교만하게 선생님의 절반만 따라가면 되지 무슨 갑절이나 원해? 참 엘리사

근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거예요.

기준을 엘리사에게 놓고 생각하다 보면 사람에게 놓고 생각하다 보면 그게 겸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와 엘리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고 있는 일의 중대성을 생각해볼 때 엘리야에 있었던 영광의 갑절이 필요한 것은 엘리사였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맡기신 일의 중대성을 알고 있는 엘리사의 심정을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 세상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끌고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하는 세상의 힘은 막강합니다.

강력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영광이 갑절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엘리사는 정말 열망했던 것이 영적인 것을 열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열망했어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의 중대성 자기에 맡겨진 일의 중요성을 엘리사는 아주 정확히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생님에게도 다르지 않습니다.

저와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도 우리 잠깐 봤지만 엘리사는 정말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을 하기위해서 지금 30여년 20여 년 그 이상의 오랜 세월을 지금 살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출발은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셨다면 거듭나는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먼저 태어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이어주셨고 낳게 하셨고 그리고 거듭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회를 제공해주신 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의 가장 근본은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입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거기부터 시작입니다.

부모님 마땅히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달아 알아 간다면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부모님에 대한 사랑도 점점 커질 수 밖에 없는겁니다

부모님이 구원을 받으셨든 구원을 받지 않으셨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또 이 엘리사는요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큰 엘리야의 능력을 감절이나 받은 사람이 자기의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에돔 광야로 이스라엘 군대가 내려갔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하고 에돔왕하고 더불어 행하는 일 가운데요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전쟁을 하러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물이 다 떨어진거예요

근데요 이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왕이 유다왕하고 에돔왕하고 더불어 행하고 있는데요

이 먹을 물이 없는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이 사람들 중에 와 이거 우리들을 이 땅에서 모압 손에 붙이시려고 하는가보다 그랬더니요

열왕기하 3:11 ~ 12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만한 여호와와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와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엘리사는요 아주 큰 능력을 행하고 있는 그런 선지자지만 자기의 때를 기다리며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어요

선생님의 손에 물을 묻는 것 이건 아주 지극히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 일을 엘리사가 엘리야를 섬기면서 했던 일로 설명이 되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자기의 위치를 지킬 줄 아는 겸손입니다.

엘리사의 성품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엘리사는 또한 굉장히 용기있는 사람이에요

여호람 왕을 꾸짖는데요

아주 정확하게 여호람 왕을 꾸짖습니다.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에게로 내려온 여호람 왕에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아합과 이세벨의 선지자들에게 가소서 하는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와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

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여호람을 꾸짖어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여호람이 바알의 신상을 제거는 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의 제사장들이 그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둔 일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19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을 숭배하게 만드는 이세벨이 그때도 그냥 살아 있었거든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바알 신상은 없어졌어도 바알을 섬기는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어요 여호람이 한 쪽만 하고 절반만하고 말아버리니까 막 꾸짖는겁니다.

왕을 이렇게 꾸짖어요

목숨 내놓은 거아니예요?

얼마나 강직해요

정직하게 자기가 해야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엘리사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었거든요

타협하는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과 똑같아요

지금 그 역할을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맡기셨고 우리도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큰 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나아만 그리고 아람왕 벤하닷의 선물로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사욕을 채우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만을 전했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했어요

그들의 삶가운데 자 이 엘리사가 사역하는 가운데 기적을 약 20번정도 보였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엘리사의 뜻이 뭐라고요?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것과 다 연결이 되요

엘리사의 기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망에 처한 사람들을 생명가운데로 옮기기 위해 오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했던 기적 자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기적들을 계속

해서 보여줍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 이름의 뜻처럼 사역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먼저요 엘리사의 선생님 엘리야 성경에 보면 이 엘리야는 세례요한과 비교가 되요

세례요한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7장 지금부터는 몇가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엘리야와 엘리사를 조금 비교해보고 세례요한과 예수님을 조금 비교해보겠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7:10~12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엘리야가 먼저 왔다고 했죠

이거는요 세례요한이 엘리야다 라는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해서 세례요한으로 왔다는 것이 아니라 세례요한이 하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가운데 엘리야가 했던 바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하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이것이 세례요한이 했다 그런 말씀인데요

엘리야를 세례요한과 비교하죠

그림자로 나타난거예요

실제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장봅시다.

천사 가브리엘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
성을 예비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이에요?

세례요한에 대한 말이에요

가브리엘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세례요한이 했던 일을 엘리야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같은 개념이죠?

그림자로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엘리사 엘리사가 했던 일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같게 구
원의 역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라는 특징의 사
역을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보이면서 그 가운데서 이런 생명으로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런 일들을 꼭 보여주시는데요

먼저 이 엘리사가 제일 먼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옷을 받았어요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에게 옷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그 겹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치며 가르고 건너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열왕기하 2:19~22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좇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찌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여리고의 좋지 않은 물 죽음을 주고 그리고 토산을 잇지 못하고 떨어지는 열매가 맺지 않는 맺힐 수 없는 그런 물이 있었어요

안 좋은 물이죠 그런데 이것을 죽음의 물을 소금을 가지고 그 물 근원으로 잡았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엘리사의 기적이죠?

그리고 계속 그것은 이어집니다.

사마리아에서 에돔으로 내려가가지고요

아까 봤던 것처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요

막 이 물이 없어서 짐승들에게 먹일 물이 없고 그러니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열왕기하 3장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 궤멸될 수 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군대를 살려주십니다.

20절 [아침에 미쳐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물이 없어서요 다 죽게 생긴 판에 물을 주셨어요

죽음 가운데 다시 또한 생명으로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적을 또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벰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요

죽은 아들을 살려냈어요

그리고 또 독이 든 궁궐에서 독만 빼요

그렇죠?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보면요 죽을 수 밖에 없는 사망의 독에서 그 독을 제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한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리떡20과 채소 두 자리로 일백명을 먹인 일백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행한 다음에 5장을 보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계속 이 엘리사의 기적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도끼가 떠오르는 기적이 있어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도끼가 떠오른다고 하는 것은요

열왕기하 6:5~7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아아, 내 주여 이는 빌어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보세요 도끼가요

물에 빠지면 이건 당연히 가라앉는게 순리에요

그렇죠?

이 도끼가 빠지면 가라앉는게 순리인데 그 순리를 역행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또 사망의 세력을 죽음의 세력을 아래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 세력을 새로운 생명으로 바꿔놨어요 다시 올라오게 그 이름대로 여호와와 구원이시다.

원래 우리는 다 사망에 처할 수 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엘리사의 시체에 죽은 사람이 닿자마자 다시 살아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또한 행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모든 능력은 엘리사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역할을 맡아서 수고하는 사람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요 정말 엘리사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능력을 감절이나 구하는 것, 그것 우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필요한 겁니다.

일의 중대성을 점점 깨달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외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엘리야가 죽었을 때도 엘리사가 죽었을 때도 왕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마병이었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요 우리 아이들 지키는 사람들 누구니까?

지금 우리 시대 주님 바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고 가르쳐주어야 할 사람 바로 선생님들이지요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봐요 우리가 정말 우리 아이들을 지키는 그런 마병이 되어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정말 지켜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빌립보서 1:27~29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빙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빙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까지 받는 것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은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 그리고 고난을 주를 위하여 고난 받는 일 다 포함되는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일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의 중대성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먼저 우리 아이들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는 것이 주님 일에 임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4:1~4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

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부르심을 입은 그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엘리사가 보여주신 하나님 섬기는데 도왔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